

2017년 5월 20일, 구좌읍 송당리 송당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고연자(여, 1940년생, 구좌읍 송당리)

• 줄거리: 부잣집에 대롱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고 말았다. 그 화가 주인집의 아들에게 미쳐 아들은 병을 앓게 되었는데,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.

하루는 지나가던 고객이 물을 얻어 마시려 이 집에 들렀다가, 주인의 하소연을 듣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상을 차려 아이의 병을 구원하려 하지만 어떤 방도가 없었다. 그러던 중 우연히 천장에 달린 대롱이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“대롱아, 대롱아.”를 외쳤다.

주인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살다가 급작스럽게 죽은 하인이 대롱이라며, 그가 죽은 뒤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. 아들이 앓는 병의 원인이 밝혀지자 아무 것도 먹지 못하던 아이는 금세 물과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다.

이를 계기로 고객은 용한 무당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부잣집에서는 불쌍하게 죽은 대롱이의 영혼을 잘 위하였다고 한다.

[제보자] 아이, 그 사람은 놈이 집이 이제 ?뜨믄 소 보는 장남인디. 그 집이 살명 일도 허곡 허드렛일도 허곡 장남일도 허단. 벨로 무시거 먹을 것도 잘 안 주곡 배도 고프곡 허니까 겐. 그냥 어떻게 어떻게 얼어 죽고 죽엇어. 겐이 사람이 막 기냥 억울허게 그 집에 살당 돈도 벨로 못 받곡 죽으니까. 그 사름 이름이 대롱이라 대롱이.

그냥 그 집이 그 사름이 죽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귀헌 아들이 막 아팟어. 죽게 아프니까 지나가는 어떤 그런, 이런, 저, 무당 같은 사람이 쓱 어디, 대수중이나 어떤 사름이 들어왕.

“아, 우리 지나가는 사름 저 물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엇습네까?”

“아이고, 물은 얼마든지 드릴 건디. 아이고, 이레 들어와그네 어떤 어른이꽈? 이 우리 얘기나 헛쓸 살려주민 나 물 아닌 벨 거라도 드리쿠다. 아이고, 이레 저 이레 들어옵서 들어옵서.”

허난 들어간 거라. 게난 애긴 저 안이서 물도 훈 직 못 먹고 다 죽어가는 아덜이 잇이니까. 이것도 거짓말 잘하는 사름이주, 이거?

거난 이제.

“어디가 그렇게 불편해서 어머니, 저, 부인께선 그렇게 쩔쩔멘 몸둘 바를 몰값이넨.”

“아이고, 난 아덜이 하나 잇는다. 은도 금도 귀찮고 돈도 많고 이렇게 헨디. 우리 집안에 이 아이 대를 이을 사람인디. 이 사람이 다 죽어가니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, 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.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젼넨.”

허난. 뭐 능력이랄 건 엊고 그럴 것이믄 배도 고프곡 허니까 자기가 먹곡 혈라고.

“곤밥이나 한 사발 헤 놓곡. 우력이라도 잇이믄 구워 놓곡, 물도 떠놓곡 상 훈 번 차려보렌. 그 아이 살려달렌 빌肯.”

허난. 거 일어산 부리나게 출린 거라.

게난 이거 상을 딱 출련. 젯자리 폐 놓곡 그래 상 갓단 곤밥 헤 놓곡 막 김이 모 락모락 나는 거. 거, 얼마나 그 사람 꼴깍꼴깍 먹고시풀 거? 그 거짓말쟁이. 거난, 암만 앗앙 그 상을 (웃음) 쳐다봐도 자기가 혈 말이 엊어. 아는 게 엊으니까.

[조사자] 뭘 골아야 뒷는디 말명을.

[제보자] 말명을

“이 얘기를 살려줍센.”

을 허든지, 무신

“구신이 씨여서 야이는 죽어가고 잇으니까.”

그, 저, 뭘 말명을 해야 뒷는데, 말명을 못 헨디.

가만히 천장을 쳐다보니까 대롱이라는 그 대막뎅이가 그 천장에 꽉아져 잇더래.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엊이. 자기를 살려달렌 허난.

“대롱아, 대롱아.”

자기 말명이 뭘 나오게 해도렌.

“대롱아, 대롱아.” 허난.

이 할망이 그냥 벌떡 일어난

“와, 하이고 무슨 말이꽈, 지금? 그 대롱이라는 말, 어디서 들은 말이꽈 지금?”

“아니, 난 그냥 대롱아, 대롱아. 뭐가 잘못 웃으면 대롱아 나를 좀 살려달렌. 경

말했지.”

“아이고,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?”

고.

“우리 집이 사실은 대롱이라는 장남이 살다가, 이거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죽곡. 그렇게 가불고 난 담에 이 아이가 이 갑자기 아팟다.”

이거야.

“그렇지! 대롱아, 대롱아.”

이제 소리가 막 크게 나온 거라

“살려주伦.”

겨난 막 이 할망은 쓸도 펴오곡 돈도 펴오곡 막 펴온 거라.

그 아이가 그디서 그냥 뭐 훈 말이 잇는 건 ‘대롱이’ 흔나뿐. 겨난

“시원허게 물이라도 우선 흔나, 훈 직 먹으伦.”

겨난 그 얘기가 일어난 그 물을 받양 먹더래.

“나도 훈 번 먹고 느도 훈 번 먹고 밥도 훈 번씩 먹어봐야 인간은 사는 거지.”

허멍 허난 아, 그 밥을 떠 먹언. 게난 그 얘기가 살아낫어.

그니깐 이게 큰 그냥 이 하늘 아래서 최고 무당으로

“대롱아, 대롱아.”

해서 그걸로 헨 살안 훈 재산 벌엉 가곡. 그 대롱이 신을 그 집이서도 극진허게.

그 ‘장남이었지만은 너무 불쌍허게 그 사름 죽언 경 헷구나.’

헤네 잘헨 잘 묻어주곡 아덜도 살고 경 헷덴.

- 핵심어 : 대롱이, 장남, 아덜, 거짓말쟁이, 무당, 심방, 말명, 영혼